<인터뷰 : 정해주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

“ 자유경쟁은 상공정책의 기본입니다"

『우리산업이 21세기 신경제 질서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고취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표본형을 잘 만들어 내는 지장스타일로 부내에 널리 알려진 정해주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51)는 취임일성에서 무엇보다 개방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산업합리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정차관보는 지난 80년부터 4년여 동안의 대통령 비서실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부분과 전체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상공자원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학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국제경쟁기반의 구축, 기술개발강화, 환경문제에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정차관보는 최근 기술과 환경으로 대변되는 신국제질서 속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간의 여건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을 대표해온 협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개방화된 세계질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적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 구조개편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석유화학 감산문제에 대해 『석유화학기업의 감산이 공정거래법상 재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이뤄지지 않고 단지 기업별 경영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이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 정책조정자에서 실질적인 산업정책 결정권자로 자리 옮김을 하셨는데, 이에대한 소감과 기본방침은?
◆ 기획관리실장은 부내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예산 · 입법 등과 관련한 대외업무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척 바쁘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을 직접 관장하는 자리로 옮기게 됐으니 차분하게 우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예견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경쟁여건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 화학산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 대체로 화학산업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그리고 요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전자 · 자동차 · 섬유 · 항공기 등 전방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소재산업이며, 정밀화학은 각종 유 · 무기화학물질의 혼합반응으로 농약 · 의약품 · 염료 · 도료 등의 고부가가치제품을 제조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요업 또한 토목 · 건축 및 TV브라운관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유리 · 도자기 ·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산업임을 고려할 때, 화학산업은 국내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의 의 · 식 · 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화학산업중 석유화학과 요업은 그 규모나 제조기술에 있어서 에틸렌 기준 세계5위의 생산국이자 세계 교역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정밀화학은 고도기술 및 경험축적을 요하는 산업으로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과감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상공자원부의 화학산업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또 그동안 상공정책에 자주 등장해온 「첨단화학」이라는 용어는 국내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화학산업부문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국제경쟁기반의 구축, 기술개발 강화, 환경문제에의 능동적 대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위해 Up-Down간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투자 유도, 원료의 저가 안정확보, SOC시설 확충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정밀화학, 파인 세라믹스 등 유망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 GR 및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공부에서「첨단화학」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국내 화학산업의 현실반영보다는 미래에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를 지향하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석유화학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감산 등에 의한 가격인상 도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담합행위로 보는지…
◆ 석유화학산업계의 경영악화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상태의 해소를 통한 과당경쟁 지양이 긴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일부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감산 등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잇따른 국내외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발생 등으로 주요 합성수지제품의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시점에서 별도의 가시적인 감산조치는 그리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 정밀화학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일면 산업경쟁력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소기업 보호시책에 배치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정책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정밀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중간체 · 원제를 수입에 의존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체 · 원제분야는 정밀화학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아직 국내에선 미개척분야로 물질특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대부분 선진 다국적 화학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들 다국적 기업과 제대로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여력이 있고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할분담체제를 구축, 상호 협조체제 아래 정밀화학산업을 균형있게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방화시대에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덤핑시비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외국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 반덤핑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가출혈수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기업간 과당경쟁 자제를 통한 수출가 회복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양국간 또는 지역내 통상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방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와함께 중국 등 각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통상마찰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산업피해 방지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덤핑 판정을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 휘발유가격을 둘러싼 정유사간 과열경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산업분야의 기업간 마찰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상공자원부의 정책기준이 기업자율화 시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 희석되거나 모호해지는 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과거에는 각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규제 및 보호주의 정책을 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율화 · 개방화시대에 부응, 경쟁유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어느정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선진화된 협회운영을 위해 조직기능상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경제전반의 자율화추세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며, 그 구심점은 관련 사업자단체인 석유화학공업협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현행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학산업연합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 당위성이나 운영비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시 상공자원분야의 산업규제 완화방안을 직접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 우리경제가 양적 · 질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특히 민간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기업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규제완화작업이 주로 기업의 건의사항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금융 · 입지 등 중점애로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마인드가 우선 바꿔져야 하며, 규제완화로 인한 일시적 부작용을 모두 정부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학저널 1994/8/1>